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판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판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판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다른.

요약 연대표

표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판	●	●	●	●	●	●
판	-	-	-	-	-	-
판	-	-	-	-	-	-
판	-	-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다른.

🕒 문헌의 첫 기록

16세기

📖 수록 용례

10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9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다른.

☞ 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썩 사전 표기 요약	—	—	—	●→	●→	●→
딴 사전 표기 요약	—	—	—	—	●→	●→
싼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4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뵤
16세기17세기18세기
- 썩

18세기19세기20세기

- 탄

19세기20세기현재

- 썩

19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뽕, 썩, 썩, 탄



탄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탄’의 옛말인 ‘뽕’은 16세기부터 나타난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부터는 어두의 ‘ㅂ’을 ‘ㅅ’으로 표기한 ‘썩’이 나타나고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가 ‘ㅏ’로 변하는 현상과 근대 국어 후기에 ‘ㅅ’을 ‘ㄷ’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19세기에 ‘탄’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탄

전체 용례 10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6세기 뽕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뽕

출처 1517 번역노걸대 하:7L

용례 01

문헌 용례

우리 혼 짓 사름이며 또 뽐 사름 아니어니쑈나.

현대어 풀이

우리 한 집안 사람이며 또 뽐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대응 원문

咱們一家人 又不是別人.

17세기 뽐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뽐

출처 1670 노걸대언해 하:6L

용례 02

문헌 용례

우리 혼 짓 사름이오 또 뽐 사름이 아니어니쑈녀.

현대어 풀이

우리 한 집안 사람이고 또 뽐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대응 원문

咱們一家人 又不是別人.

18세기 뽐, 쑈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뽐, 쑈

출처 18세기 형세언 3:11ㄱ

용례 03

66 문헌 용례

등함이 제 주인이 더브러다가 뽀 방의 두고 겨집종 하나를 어더 수환하게 하고.

ㄷㅅ 현대어 풀이

중함이 제 주인과 더불어 뽀 방에 두고 겨집종 하나를 얻어 사환하게 하고.

출처 1765 청어노걸대신석 4:2ㄴ

용례 04

66 문헌 용례

또 어디 사람의게 밧고와 줄 쏜 쌀 이시리오.

ㄷㅅ 현대어 풀이

또 어디 사람에게 바꾸어 줄 뽀 쌀이 있으리오.

19세기 쏜, 싹, 뽀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쏜, 싹, 뽀

출처 1885 주교요지 하:627

용례 05

66 문헌 용례

만일 본몸이 아니오 싹 몸이면 이는 죄 업는 몸을 벌주고.

ㄷㅅ 현대어 풀이

만일 본 몸이 아니고 뽀 몸이면 이는 죄 업는 몸을 벌주고.

출처 1869 남원고사 5:15ㄱ

용례 06

66 문헌 용례

밤등의 싹 방 잡오 불을 혀고.

ㄷㅅ 현대어 풀이

밤중에 뽀 방 잡아 불을 켜고.

출처 1897 주교요지 63ㄱ

용례 07

66 문헌 용례

만일 그 령혼이 딴 몸과 합후면 이는 죄 업는 몸을 벌주며.

㉮ 현대어 풀이

만일 그 영혼이 딴 몸과 합하면 이는 죄 없는 몸을 벌주며.

20세기 쏜, 딴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쏘, 딴

출처 1907 귀의성 상:91

용례 08

66 문헌 용례

영감이 쏜 욕심이 잇서서 양주를 아니하였지.

㉮ 현대어 풀이

감이 딴 욕심이 있어서 양자를 아니하였지.

출처 1908 치악산 상:146

용례 09

66 문헌 용례

제 압만 보다가 부인 간 곳을 일코 쏜 데로 향후야 가다가.

㉮ 현대어 풀이

제 앞만 보다가 부인 간 곳을 잃고 딴 데로 향하야 가다가.

출처 1921 동아일보 8월 12일 1면

용례 10

66 문헌 용례

길 떠나려는 딴 고장 손님 틈에 석기어서 가는 뉘(형)님 보내는 나는 서로 손목 잡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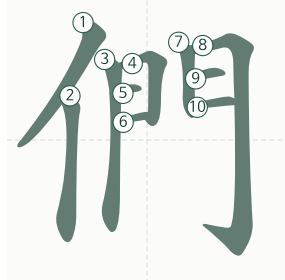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딴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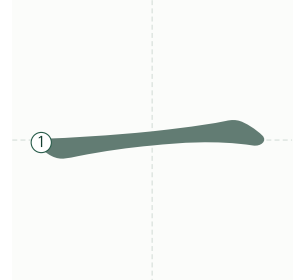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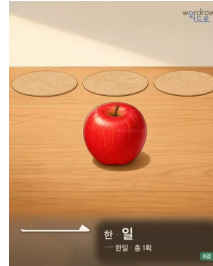
뜻·음 무리 문
총 10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們/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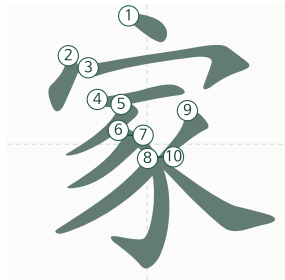
뜻·음 한 일
총 1획 · 부수 一



hanja.wordrow.kr/한자/一/

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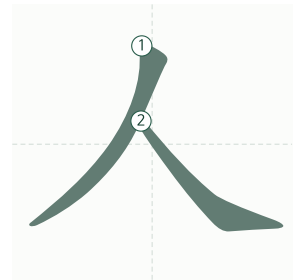
뜻·음 집 가
총 10획 · 부수 宀



hanja.wordrow.kr/한자/家/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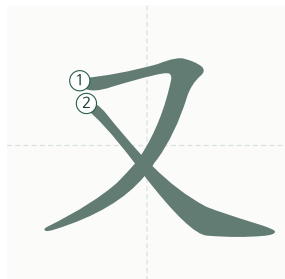
뜻·음 사람 인
총 2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人/

又

뜻·음 또 우
총 2획 · 부수 又



hanja.wordrow.kr/한자/又/

不

뜻·음 아닐 불
총 4획 · 부수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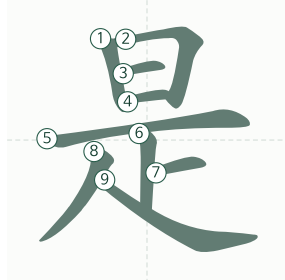
획순 자료 미제공

hanja.wordrow.kr/한자/不/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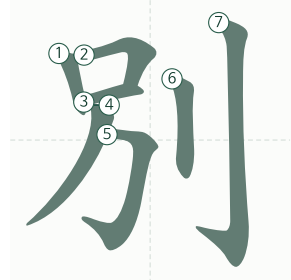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是 뜻·음 이[斯]·옳을 시
총 9획 · 부수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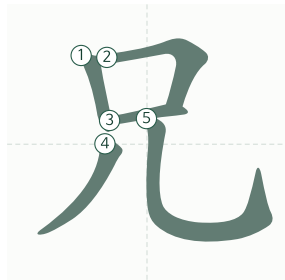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是/

別 뜻·음 다를·나눌 별
총 7획 · 부수 刀



hanja.wordrow.kr/한자/別/

兄 뜻·음 형형
총 5획 · 부수 儿



hanja.wordrow.kr/한자/兄/